

5월24일(월)/사도행전23:11

제목: 환란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리새인인 바울을 두둔하는 바리새파와 그의 반대파의 대립 양상으로 공회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덕분에 바울의 생명은 연장될 수 있었다. 살인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교리 문제가 대두되자 갈등하게 되었고 바울 문제는 잠시 유보되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혼자 감옥에 있지 않았다. 주님이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셨다. 그리고 “담대하라 네가 ...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다.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뜻이다.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자주 “용기를 내라”고 하셨다. 그는 중풍병자(마9:2)와 혈루증앓은 여인(마9:22)과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마14:27)과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요16:33)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로마 선교)도 주셨다. 주님은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신의 백성 곁에 늘 서신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신다. 환란 당하는 자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5월25일(화)/사도행전23:12~30 (1)

제목: 정신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려던 음모가 무산되자 40명의 행동대원들이 그를 암살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단체를 결성하였다(12~13절). 이 단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합법적인 공인을 받고 매복을 시작하였다(15절). 그러나 바울의 생질이 이를 알아차리고 로마의 천부장에 알람으로 그의 신변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16~22절).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들은 유대교 광신자들이었다. 가장 극렬한 감정은 이렇게 종교적인 광신에서 나온다. 가장 극렬한 적대감은 종교적인 맹목에서 나온다. 맹목성이 강한 자들은 항상 광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광신은 어떤 신앙이나 사상에 대해서 이성을 잃고 믿는 자들이다. 우리 주변에는 광신자들이 많이 있다.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고, 특정한 교리에 빠져 현세를 등지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우선은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말인지 아닌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한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분 밖에 없다. 특정 사람이나 특정 교리는 다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한다.

5월26일(수)/사도행전23:12~30 (2)

제목: 돌볼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

천부장은 로마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무슨 해라도 미치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넘기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단을 강구하였다.(22~24절) 그리고 총독에게 미리 편지를 써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통고하였다(25~29절). 이로써 바울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때 바울을 위해서 아무 조치도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의 천부장은 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40명의 행동대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구했는가? 하나님은 그를 상처받아 지친 몸을 끌고 길가를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지 않고 말을 타고 470명의 군인들과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는 밤에 말을 타고 군인들 틈에 섞여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여행을 하였다. 하나님은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지친 몸으로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종종 나를 돌볼 사람을 보내셔서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5월27일(목)/사도행전23:31~35

제목: 고립도 은혜입니다.

군인들에 의해 호송되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관을 받았다(31~33절). 총독은 바울에게 출신지를 물었다(34절). 총독이 출신지를 물은 것은 죄인은 소속 영지에 따라 그 관할 지역으로 이송되어 재판관을 받기 때문이었다. 총독은 길리기아 출신인 바울의 재판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그를 헤롯 궁에 가두었다(35절).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와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는 헤롯 궁 안에 있어야만 했다. 그곳은 감옥이었다. 그곳은 고립된 곳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곳도 하나님이 제공할 때는 가장 안전한 궁전이 되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기저기 바울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두시기 위해서 헤롯 궁 안에 고립시켜 두었다. 우리도 종종 세상에서 고립될 때가 있다. 우리도 종종 인간관계에서 외톨이가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속세에 물들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인생 감옥으로 보내서 고립시키신다. 그렇게 세상과 잠시 떠나있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고립도 은혜가 된다.

5월28일(금)/사도행전24:1~9

제목: 발언을 잘 합시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지 닷새 후에 바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왔다(1절).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아침함으로 장황하게 시작하였다. 그는 총독이 시행하여온 개혁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장기간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며 환심을 샀다(3절). 이것은 매국적인 발언이었다. 그는 로마의 총독에게는 아침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자기 동족바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고소는 바울에 대해서 총독이 편견을 갖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그는 바울이 사람들을 격분시키는 전염병을 퍼트리는 자라고 하였다(5절). 로마가 무질서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한 교묘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주모자라고 하였다(5절). 로마는 역사상 이단집단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흥분시키며 봉기를 이끄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더둘로의 발언은 교묘하며 악랄하며 의도된 것이었다. 사람은 발언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사람은 사실에 있어서 정확한 발언을 해야 한다. 사람은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타인이 편견을 갖도록 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